

구역공과 제3권 (4단원 :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제19과)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 본문 : 요한복음 1:1-18
- 요절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 찬송 : 48장(새찬송가 32장), 96장(새찬송가 84장)

공과내용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로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聖人)이나 혹은 박애주의자 혹은 사회 혁명가 혹은 종교의 창시자 중의 한 분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답변은 그들이 예수님을 보통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인 면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하면서도 본질상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한 인간으로 알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위의 질문에 대하여 성도들은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신 메시야(구세주)’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점에서 우리와 다른 본질을 지니신 분이시길래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일까요?

1.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미 사도들에 의해 초대 교회 때부터 전통적인 신앙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앙 고백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 20:28)라고 한 도마의 고백과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롬 9:5)이라고 한 바울의 고백 및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일 5:20)고 한 요한의 고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신앙은 신약 시대의 사도들 이전에 이미 구약 시대의 예언서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나시기 약 7백년 전에 예언하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 9:6)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난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인간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고 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셔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23) 하신 말씀과 같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없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의로써 구원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한 구속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2.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펴본 대로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 이와 동시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딤후 2:5)는 고백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을 증거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앉아 쉬시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을 요구하시고 (요 4:6~7),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마 9:36), 완악한 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막 3:5),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 11:35),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는 점에서 우리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야 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전 15:22) 하신 말씀과 같이, 첫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전 15:45).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였으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피흘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그가 몸소 육신의 고난과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적절한 도움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히 4:15~16).

3.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견해들

기독교회사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믿고 고백하는 정통적인 신앙 고백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주장하는 자들이 예로부터 있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는 자들로서 주후 2세기에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던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활동했던 ‘에비온파’를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행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로 인정받았을 뿐이지 본질상으로는 단순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사람에 불과하다면 예수님도 아담의 원죄를 타고 나셨을 터이므로 온 인류의 구주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의 인성을 거부하는 자들로서는 초대 교회 때부터 출현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하는 이원론 사상에 근거하여 영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추악한 육신을 취하실 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요일 4:2~3)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된 견해들을 배척하고 성경과 사도들의 증거를 따르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다가 그의 인성을 경시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하다가 신성을 무시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